

서남해안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 신안 다도해 섬갯벌·순천만 벌교 갯벌 등 대상 선정

자연 형성된 小路·전통마을·생물 570여종 사는 ‘생태천국’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서남해안 갯벌을 2018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남해안 갯벌은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신청서 보완을 거쳐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됐다.

서남해안 갯벌은 전남 신안 다도해 갯벌

450㎞, 보성과 순천만 갯벌 65㎞, 전북 고창 갯벌 45㎞, 충남 서천 유부도 갯벌 30㎞를 아우른다.

이 갯벌들은 모두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이며, 고창 갯벌과 신안 다도해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등재추진단은 서남해안 갯벌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로(小路)와 염전·전통마을이 있어 경관과 570여 종의 생물이 살아 가는 생태 천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매년 시베리아로 가는 300여종 100만

마리의 철새가 통과하는 주요 생태공간으로 꼽힌다.

서남해안 갯벌은 약 2만년 전 황해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다가 7000년 전 상승 속도가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해안에 쌓여 형성됐다.

문화재청은 또 내년 1월까지 서남해안 갯벌과 조선시대 유교 정신에 따라 세워진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9곳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며, 최종 등재 여부는 2019년 열리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된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정했다.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교 행사로, 누구라도 연등을 만들어 행렬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내년 3월까지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재 여부는 202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에서 판가름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11건, 세계자연유산 1건, 인류무형문화유산 19건을 보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13만원 정부 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확정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연합뉴스



대학교수·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우수해양관광상품 현장점검단이 9일 오전 해남 송호마을을 찾아 전복채취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해남 송호마을 관광 경쟁력 충분합니다”

우수해양관광상품 현장점검단 전북 양식장 등 체험

땅끝·완도 청산도·광주 송정역 1박2일 코스 판매

“관광객들이 해남 송호에 오면 다양한 전복 요리와 양식장 체험을 하면서 상당히 유익할것 같습니다. 송호어촌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인상 깊었습니다.”

9일 오전 남종현 창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박송춘 목포대 경영학과 교수, 정준영 한국어촌어항협회 과장 등 우수해양관광상품 현장점검단이 해남 송호마을을 찾았다.

이들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

을 받아 해남 송호어촌계와 광주 대원여행사가 함께 개발한 관광상품 ‘슬로시티 청산도 바다여행’의 추진 실적, 여행 안정성, 상품 완성도, 시장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우수 또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 상품은 어촌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인 해남 송호마을로 관광객을 유치해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식당, 판매점

등의시설을 활용, 마을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호마을을 거쳐 땅끝마을, 완도 청산도, 광주 송정역 등을 둘러보는 이번 관광상품은 1박2일 코스로,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판매되고 있다.

남종현 창신대 교수는 “전복양식장, 판매장 및 음식점, 송호해수욕장 등 기본적인 관광자산과 함께 캠핑장과 호텔,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해남 송호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윤현석기자chadol@

473억짜리 대형헬기 서해서 구조 펼친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 ‘S-92’ 오늘 취항

서남해역 해양사고 대처와 해양안전 서비스 토대 구축을 위해 서해해경 무안항공대에 473억원짜리 대형헬기가 배치된다.

9일 전남도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Sikorsky)사의 대형헬기 ‘S-92’가 서해해경 목포항공대에 배치돼 10일 첫 취항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에서 해경 전용 격납고 준공식도 함께 연다.

서해 상에 배치될 S-92 기종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 전용헬기로 알려져 있는 다목적 대형헬기다. 엔진은 4836마력이며, 최대 시속 259㎞, 항속거리 926㎞, 체공시간 4시간50분 가량이다.

또 첨단항법장비와 수색레이더, 광학 열상장비를 탑재해 광역해역 수색은 물론, 야간에도 해상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구조 및 수송이 가능하다.

최대 탑승인원은 21명이다. 한 번 출동할 때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 2명, 전담사 1명, 항공구조사 4명, 응급구조사 1명, 정비사 1명 등 모두 9명이 기본 적으로 탑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2명을 한 번에 구조해 이 헬기로 이송할 수 있다.

같은 기종의 다른 헬기가 2014년 3월 국내에 도입돼 현재 남해 상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해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비슷한 기종 헬기 중 최고 사양”이라며 “해상 구조활동 뿐 아니라 수색이나

수색·구조용 최고 사양 대형헬기 서해 첫 배치	
11월10일 취항	응급의료장비 이송 중 응급처치 가능
	
구조용 호이스트 최대 270kg, 약 4명 동시 구조 가능	광학·적외선 탐지장비 (고성능 탐색레이더) 6km 반경 360도 수색 가능
기종	S-92
제조사	미국 시코르스키사
최대 시속	300km
항속 시간	최대 5시간 45분
항속 거리	1천28km
최대 탑승인원	21명 (기본 탑승 9명: 기장·부기장 등 조종사 2명, 전담사 1명, 항공구조사 4명, 응급구조사 1명, 정비사 1명 등)
구조 가능인원	최대 12명
특징	주·야간 해상 수색, 인명구조 가능
자료/해상경찰청	 연암뉴스

수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지은 무안공항 격납고는 2016년 8월 착공해 1년3개월간 73억여원을 들여 완공했다. 연면적 2930㎡의 규모로 고정익 항공기(CN-235) 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절기 AI 예방’ 전남 일부 농장 오리 사육 제한

나주 등 27곳 내달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큰 동절기에 맞춰 전남 일부 농장의 오리 사육이 제한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농가와 주변 500m 이내 농가 등 모두 27곳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사육을 제한한다. 지역별로는 나주 6농가, 장흥 5농가, 해남 2농가, 영암 14농가다.

사육 제한 농가에는 4개월간 휴업 보상을 위해 과거 1년간 평균 사육 마리당 510원(2회분)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모든 시·군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AI 반북 발생 등 위험 지역 9개 시·군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입식 사

전 승인제 운용 등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는 사육시설과 출입자량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비금도·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매 14억(임시불 대폭조정), 무인도
010-3605-5000 교환가능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미국연수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함께 설명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